

성윤모 장관, 산업융합 규제특례위 참석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참석했다. 이번 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은 국회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탄전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중앙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건의 수소충전소 설치다.

최종열 부산테크노파크 신임 원장 취임



부산테크노파크(이사장 오거돈) 제7대 원장에 최종열(64)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 최 원장은 “부산테크노파크가 부산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야 하며, 지역 기술혁신 거점으로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촉진하고 신기술 창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인사

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급 전보▲
방사성폐기물안전

과장 장민숙

터뷰



한정완
더조은자동차 사장

“중고차 경매는 안전하고 투명한 구매 절차와 가격을 보장합니다.”

한정완 더조은자동차 사장은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성행하고 있는 허위매물, 서비스 불량 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동차 경매’를 소개했다.

한 시장은 “보통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사려고 하면 포털에서 검색해 인천·부천 중고차 전시장에 찾아가는데 90%는 허위매물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고객 대부분이 중고차 경매를 찾는다”고 말했다.

더조은자동차는 현대글로비스오토옥션, 롯데오토옥션, AJ셀카옥션, SK엔카옥션 등 대기업 경매장에 출품된 중고차를 낙찰 받아주는 자동차 경매 대행사다. 일종의 경매 알선 딜러라고 할 수 있다.

중고차 경매는 월~금요일까지 매일 다른 경매장에서 열리며 하루 500~1000대 이상의 차량이 진

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중고차 경매를 문의하면 차량 전문가가 예산 설정과 경매 절차에 대해 상담을 해준다. 이후 출품 정보 전송, 입찰 보증금(시차가의 10%) 입금, 낙찰 후 상품화 작업, 차량 점검, 고객 인도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보증금은 낙찰 실패시 전액 100% 환불되고 다음 입찰 때 사용하기 위해 보관된다. 다만 단순변심으로 낙찰을 취소하면 이 보증금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자동차 경매에서는 시승차나 관공서에서 업무용으로 쓰였던 차량이 인기가 많다. 보통 풀옵션인데

“중고차 경매, 안전하고 투명한 구매 절차·가격 보장”

신차 대비 300만~500만원 저렴...여유갖고 입찰 참여해야

열린다. 차량 리스트는 더조은자동차처럼 연회비와 보증금을 내고 맴버로 가입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한 시장은 “허위매물은 물론 계기판 조작, 법원 압류나 저당잡힌 차는 아예 경매장에 출품 자체를 할 수 없으며 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명확히 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차량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경매장에서 지고 평가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2차 점검을 해주는 등 사후관리가 철저하다”며 “만약 차량에 문제가 있어 교환하고 싶으면 클레임을 걸고 보상이나 취소를 할 수 있고, 차량 결함이 중대하면 교환에 대한 감가를 신청해 환급해준다”고 덧붙였다.

경매 절차는 예상외로 쉽고 단순하다. 고객이 전

다 차량 상태도 깨끗하고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이다. 가격은 신차대비 300만~500만원정도 싼 편이다. 이외에 광택, 센터 등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시중가의 3분의 1정도로 저렴하다.

한 시장은 “휠셋, 풀옵션, 선루프가 있는 차의 경우 수요가 많다”며 “이러한 차들은 불과 1초만에 경매가 끝나기도 해 미리 최대치를 정해 딜러에게 알려주면 입찰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시간적 여유를 두고 3~6개월 지켜볼 생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차종이 바뀔 수도 있고 예산이 증가할 수도 있어 더 좋은 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근우·양진영 기자 igw909@

이동일 세종대학교 교수 한국상품학회 회장 취임



이동일 세종대학교 교수(사진)가 한국상품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이동일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달 1일 제19대 한국상품학회 회장에 취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21년까지 2년 간 회장을 맡게 된다.

1982년에 설립된 한국상품학회는 마케팅·브랜드, 생산·서비스, 디자인, 문화·관광·이벤트, 국제통상 분과와 디지털 상품 분과 활동을 통해 상품학을 연구하는 공동체다.

이 교수는 “상품관리에 대해 해외 학계와 더욱 긴밀히 교류하겠다”며 “해외시장에서 상품의 동향, 상품학 연구의 현황을 우리 학계에서도 공유하고 전파하는 구심점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취임인사를 남겼다.

문수연 기자 moonsr@

제16회 전기사랑 마라톤대회

2019.4.13. (토) 09:30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

참가접수: 2019. 2. 22. (금) 까지

하프(21.0975 km), 10km, 5km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신문

한국수력원자력주

www.e-powermarathon.com 계속 주, 참가신청을 꼭꼭해 주세요.

NAVER 전기사랑마라톤

이종호 KIST 박사,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선정... 대면적 세라믹 연료전지 기술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2월 수상자로 대면적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 기술 확보에 공로가 있는 이종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사진)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을 수여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박사의 ‘대면적 고성능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PCFC) 개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시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세라믹 연료전지는 값비싼 귀금속 촉매를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연료전지보다 발전효율이 뛰어나다.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는 수소 이온을 전달하는 세라믹 전해질로 구성, 기존 세라믹 연료전지 전해질보다 이론적으로 100배 이상 전기전도율이 높다.



하지만 기존 세라믹 연료전지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소재 물성으로 박막 전해질-전극 접합체 제작이 매우 어렵고 고온 공정 중 급격한 물성 저하가 발생, 오랜 연구개발에도 상용화 가능성이 요원한 실정이었다.

이 박사는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 전해질-전극 접합체 구조 열처리 과정 중 전해질이 치밀해지는 원리를 세계 최초로 확립, 공정 온도를 낮추었다. 이를 통해 셀 구성 성분 간 수축률과 온도 차를 낮춰 전해질 결함을 줄였다. 성능 극대화뿐 아니라 상용화 수준의 대면적(5×5cm) 전지를 제조할 수 있는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 박사는 “저온 전해질-연료극 동시 제작 공정 기술은 신규 소재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경제적인 공정으로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의 추가적인 대면적화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의 상용화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연료 생산 및 저장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

한국표준협회-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업무협약

한국표준협회(회장 이상진)는 8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백중수)와 의료기기산업 표준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지원중인 기업 약 130사에 대해 ▲반부패경영시스템 구축 ▲국내외 기술표준 보급 및 표준화 ▲ISO인증, KS인증 등 국내외 인증 ▲표준화·품질경영을 위한 기업혁신 및 인재양성 교육 등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진 한국표준협회장은 이날 협약식 이후 “의료기기 산업의 해외수출 전략 및 시사점”이란 주제로 의료기기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기기 산업기술은 세계에서 으뜸이라 자부할 수 있으나 관련 분야의 표준화는 더디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양 기관이 힘을 합쳐 의료기기 산업의 표준화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백중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은 “의료기기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외 인증제도, 품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전문기관과의 연계와 교육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희 기자 xxi@



이상진(오른쪽) 한국표준협회장과 백중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이 8일 의료기기산업 표준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에너지지, 태양광 지원센터 기간제 모집

서울에너지공사가 올해 태양광 지원센터 권역별 센터 운영을 위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운영관리 2명(매니저급) ▲홍보·교육·기술행정 12명(컨설턴트) 등 총 14명이다.

응시원서는 이달 12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받는다. 공사 햇빛운영부로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se2019@i-se.c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i-se.co.kr)와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덕환 기자